

Journal of Kijeon Cultural Studies, Vol. 43, No. 2, December 2022
<http://dx.doi.org/10.26426/KCS.2022.43.2.29>

부평 조병창의 역사적 상징성과 유산 가치

박명식*

국문 요약

최근 인천육군조병창의 흔적과 건물을 두고 철거와 보존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일제강점기 부평 지역에 조성된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적 의미와 그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종합적인 시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부평 지역에 들어선 인천육군조병창의 입지 배경과 주요 기능을 당시의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밝히는 한편, 오늘날 인천육군조병창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인천육군조병창을 구성했던 일부 건물의 보존과 철거를 둘러싼 최근의 의견 대립의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일본인천육군조병창, 아시아태평양전쟁, 부영공원, 함봉산 지하시설, 미쓰비시 제강공장, 부평공원, 미쓰비시 출사택, 영단주택,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1. 머리말

최근 인천에서는 인천육군조병창 시기에 건설된 조병창 건물에 대한 보존과 철거 논란이 뜨겁다. 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조병창 건물 주변으로 토양 오염이 심하고 건물 자체도 역사적 가치가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존해야 한다는 측은 조병창 건물이 지닌 역

* 부평문화원 이사 (Director of Bupyeong Cultural Center), momo6275@naver.com

사 문화적 의미가 크고 주변 토양 오염도 건물을 보존한 상태에서도 충분한 토양 정화가 가능하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두 입장이 충돌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인천육군조병창 건물을 두고 철거와 보존 의견이 서로 충돌하게 된 이유에는 일제강점기에 부평에 설치된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적 의미와 그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인천부평 지역에서 종합적인 시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데에도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까지 인천육군조병창에 대한 연구는 조병창 내 지하 시설의 존재 유무(조건, 2021)와 강제동원 관점(정혜경, 2016; 이상의, 2019)에서 바라보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인천육군조병창이 부평에 설치된 이유와 조병창이 당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당시 생산된 조병창 관련 자료 등을 찾아서 인천육군조병창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찾는 한편,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물을 둘러싼 보존과 철거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다. 다만 이 글은 일제강점기의 인천육군조병창에 한정해서만 다루고자 하며, 광복 뒤에 미군 주둔으로 이어지는 연구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2. 일제 대륙 침략 군사기지로서 부평 인천육군조병창

일제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인한 대륙 침략과 강제 동원이 살아 있는 증거의 역사가 부평도심 한복판에 ‘인천육군조병창’이란 이름으로 1/8의 정도만 남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제의 민낯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후대에 알려 줄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토록 흥분했던, 폐허가 된 군함도와 사도 탄광에서 보듯이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의 강제 동원 역사 기록을 지운 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있다. 독일 나치의 잔학 행위에 희생된 400백만 명의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유네스코는 1979년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를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했다.

2020년 11월 문화재청의 보존 권고를 하였던 삼릉 사택, 영단 주택, 발전소 사택, 디젤 사택, 철도원 사택, 함봉산의 30여 개의 지하호,¹⁾ 조병창 시설물, 방공포대, 부평선 철도, 적산 공장 등 전쟁 유산이 남아 있는 곳이 부평이다. 침략 전쟁을 위한 공장은 1940년 4월 1일 종래의 육군병기창과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는데, 이때 일제의 육군병기창 예하 지창으로 편제되었다. 전쟁 말기에 육군조병창은 공장에 해당하는 도쿄 제1 및 도쿄 제2, 사가미(相模),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인천 부평, 남만(南滿, 奉天), 고쿠라(小倉) 등지에

1) 이 지하호는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도쿄 육군 제1조병창을 이전하기 위한 지하공장을 만들기 위한 조병창 시설의 일부였다.

총 8개소가 있었다. 일본 본토를 제외한 조병창은 남만과 인천 부평 두 곳이 있었는데, 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인천육군조병창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동시에 준비했다.

부평은 분지라는 자연 조건과 경인 철도와 항만 시설이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군수 기지가 입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이 만주침공과 1937년 중일전쟁을 신호탄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 이하 ‘아태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제국주의는 침략전쟁을 치르기 위해 근거법인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 1938.04. 공포, 1938.05. 시행)을 제정·공포하고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인적, 물적 자원과 자금을 동원했다. 아태전쟁으로 인해 15년간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4천만 민중이 전쟁 피해를 입었고, 그 가운데에는 연인원 782만 명 정도의 한반도 민중이 포함되어 있다.²⁾

군수공장은 경기와 경남, 평남, 함남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로 인력 동원이 용이하고 철도와 항만 등 인프라가 설치된 대도시에서 군수 공장을 집중 배치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정책적으로 조성한 군수공장지대이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군수공업화에서 한반도의 대표 지역은 한강 이남의 경인공업지대인 인천(현 부평구 중심)과 한강 이북의 흥남공업지대이다.

조선의 공장에 동원된 노무자의 특징은 아동의 비율이 높고, 여성과 아동을 동원한 직종이 다양했다는 점이다. 화학 공장이나 무기 생산에서도 아동과 학생의 동원 사례를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이관된 도서, 신문, 잡지 등 30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 중 ‘소년공(少年工)’ 또는 ‘산업전사(産業戰士)’라는 이름으로 된 아동 동원 관련 문헌과 신문 자료를 공개했다.

중일전쟁 이후 후방의 산업 노동자들도 전선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보국(報國)한다는 논리로 산업보국운동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의 아동들은 ‘산업전사’라는 이름으로 동원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시한 신문에는 중학교 학생들을 광산과 공장 등에 동원했던 당시의 실태가 잘 기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개한 자료 중 여성 동원을 보여주는 기록으로는 근로정신대 및 간호부 동원에 관한 신문 자료가 있다. 특히 일제는 여성 간호부들을 ‘백의의 천사’로 선전하면서 여성들을 침략전쟁의 최일선에 동원했다. 이를 위해 경성과 청진의 병원에 간호부 양성반을 설치하기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제는 간호부로 동원한 여성들에게 일본군 가미카제와 같은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개 자료 중에는 1939년 6월 경성에서 있었던 ‘조선방공전람회’ 개최시의 방공동원과 관련한 신문 자료도 있다. 1941년 12월 20일에 발행한 ‘언문 방공 독본’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방공작업과 훈련에 동원하고 “학생은 전부 방공부대”라고 선동하고, 국민학생(현 초등

2) 국무총리실, 2016,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학생)용 교과서에 방공훈련 관련 내용을 삽입했다. 이 시점이 진주만 공습 직후라는 점과 한글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던 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³⁾

일제는 1938년부터 학교별로 ‘근로보국대’를 결성하여 학생들의 근로봉사를 강제했으며, 당초 연 10일 정도를 동원했다. 그러나 전쟁이 심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제는 기간을 늘려 학생들을 노동력으로 적극 활용했는데, 학적부에는 이 같은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944년 3월부터는 ‘근로는 곧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1년 수시 동원을 강제한 통년동원(通年動員)의 원칙이 적용되었다.⁴⁾ 공개된 ‘학적부(중학생)’에는 근로보국대 동원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은 물론, 이 학생이 졸업 후에 일선 파견부대 군인·군속 명부인 「유수명부(留守名簿)」와 공탁서(供託書) 등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와 조선상공회의소 자료에 나타난 공장노무자의 업종별 구성 현황을 보면, 1936년 148,799명이었던 공장노무자는 1940년 230,688명을 넘어 1943년에는 337,269명으로 증가했다. 방직과 화학, 식료품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반도에서 토건·군사시설물 공사장은 각각 505개소와 354개소였다.⁵⁾ 일례로 1945년도에만 한반도의 본토 결전을 앞두고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한 대공·상륙작전의 방어와 군수물자 생산·저장 목적으로 군사시설물 공사에 동원된 피해자로 판정된 218,639건 가운데 ‘조선인’ 피해자는 23,490명이다.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078명이었고 군인을 제외한 ‘노무자 동원 성



[그림 1] 조병창 전경(1948.10.09.)

(자료: Norb-Faye 촬영, 부평역사박물관)

3) 국립중앙도서관, 2020, 일제강점기 아동과 여성 강제동원 자료 공개 포럼(2020.08.15.) 자료집

4) 이상의, 2018,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5) 광건흥, 2001,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격의 신고 된 사망자'는 882명(군속으로 의결된 15명 포함)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부가 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882명은 조선 동원 피해사망자(노무)의 극히 일부였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나 기업이 생산한 조선 노동동원자의 사망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피해조사결과(사망자 882명)가 유일한 자료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이 1944~1945년 사이에 생산한 주요 생산품의 종류 및 수량은 소총 4,000 정(挺)/(월), 총검 20,000 진(振)/(월),⁶⁾ 소총 실탄(實包) 700,000발(發)/(월), 대포용환 30,000발(월), 군도(軍刀) 2,000진(월), 차량 200량(輛)/(월), 피혁 마제품 200,000엔/(월), 소형배(舟艇) 250척, 무전기 200조(組) (1945년도 분)이었다.⁷⁾



[그림 2] 일본 방위성 소장 부평지하시설 현황

* 주: 현황 자료를 참고해서 조건 재작성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인천육군조병창의 일부 시설들은 일제의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살아있는 증거이며, 그 중에는 아태전쟁의 무기를 생산하거나 지하호를 건설하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거쳐 갔던 조병창 병원 건물이 포함된다. 조선총독부는 학생들도 조병창 생산 공정에 다수 투입했다. 제1차로 경성공업·인천중학·인천상업·인천공업·인천고녀·소화여고 등 6개 학교 360명의 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⁸⁾

이후에도 학생동원 사례는 계속되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882명 가운데 864명은 사망

6) 부평 제1제조소에서 만들어진 총검은 누적 45만개로서 일본 전체에서 생산된 30년식 총검 전체 수량의 5% 이상이었다(조선군잔무정리부, 1946).

7) 조선군잔무정리부, 1946, 위의 자료

8) 매일신보(1941.05.08.)

당시 나이를 알 수 있다. 사망 당시의 나이는 11세부터 75세까지였으며, 평균 사망나이는 31.6세였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6세 이하가 96명(11.11%)에 달할 정도로 유년 비율이 높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를 정점으로 10~40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10대 사망자 비율(20.48%)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부평 조병창 병원 전경

(자료: 1948.10. Norb-Faye 촬영)

광복 이후 일제의 인천육군조병창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군의학교와 병기학교(1948)가 설치되었고, 1949년에는 부평지구 위수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림 3은 현재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에 남아 있는 건물로서 인천육군조병창이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미군 제82위수병원이 잠시 들어서 있다가 1948년 5월 1일 우리나라 육군 제1병원으로 통위부 관할 최초의 군 전담 병원이 창설된 곳이기도 하다.

일본은 본토와 식민지 및 점령지, 전쟁터에서 다수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자금을 동원했다. 이는 전시 강제 동원으로서 당시 일본이 점유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강제 동원을 위해 당국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다.

전시 강제 동원은 일본 국가권력이 정책적·조직적·집단적·폭력적·계획적으로 수행한 업무였다. 일제는 행정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동원 대상에는 한반도와 조선 민중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당시의 공포했던 법과 제도마저 그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규정한 강제성이란, ‘신체적 구속이나 협박은 물론, 황민화 교육에 따른 정신적 구속 회유, 설득, 본인의 임의 결정, 취업 사기, 법적 강제에 의한 동원’이다. 라고 권고 보고서와 2015년 7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토

구니(佐藤地) 주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강제성을 인정한 공식 발언도 있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의 조선인 동원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조병창 등 관련 시설물 건축 단계의 동원, 둘째 조병창 완공 이후 무기 생산 및 제반 설비 운영을 위한 동원, 셋째 전쟁 말기 조병창의 지하화를 위한 동원이다. 일본은 아태전쟁기에 중북 인원 약 780만 명에 달하는 조선 민중을 동원했다. 물자와 자금의 피해는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1939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인천육군조병창은 1941년 초에 총검공장과 견습공 연습 공장 건물 공사를 완성하면서 무기 생산에 들어갔고, 1941년 5월 5일 인천육군조병창이라는 공식 명칭을 달고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조병창 본부를 비롯해 제1제조소, 평양제조소, 경성감독반, 부산감독반, 성진감독반 등이 설치되었고, 이들 시설에서 소총, 총검, 소총탄환, 포탄, 군도 등의 무기와, 차량, 물자수송용 잠수함까지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아시태평양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평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적인 군수물자 조달 기지로 기능하였다. 오늘날 부평 지역에는 아태전쟁기에 강제 동원된 다수의 민중과 관련된 약 24개소의 아태전쟁 유적이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천육군조병창이다.



[그림 4] 경인시가지계획평면도(1939, 10)

(자료: 매일신보, 이연경(2022)에서 재인용)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는 당초 약100만평 이상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인천육군조병창 건설은간또구미(關東組), 다다구미(多田組), 다마보구미(玉操條), 시미즈구미(清水組), 하자마구미(狭間組) 등의 5개 하청업체가 맡았다. 인근 지역에는 15개소 이상의 민간 군수물자 생산 공장들과 12개소의 조병창 부속 공장이 있었다. 1945년 3월 당시 조병창에 소속되어 있던 전체 노무자는 총 1만1,300명이었다. 이 중 일본인이 12% 정도였고 약 90%인 9천여

명이 조선인이었다. 그리고 일제는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거주지에 제한을 두었다.⁹⁾

경인시가지계획의 첫 사업지였던 곳이 부평 지구인데, 이곳에는 약 90만 평의 공업용지 조성 지구와 60만 평의 주택용지 조성 지구가 계획되어 있었다. 1938년에는 현재의 부평공원 자리에 히로나카상공(후에 미쓰비시 제강에 양도)이 들어섰고, 이 부근에는 자동차, 광산용 기계와 철도 차량의 제작 기지 및 부품 공장, 군수용 공장 등이 자리를 잡았다.

인천육군조병창은 부평 지역에 있던 제1제조 외에 평안도 평양에 제2제조소, 그리고 일신동에 평양 제2제조소 분창과 10개의 부속공장을 두고 있었다. 1942년 (주)히로나카상공을 인수한 전범 기업 (주)미쓰비시제강 인천제작소는 추가로 노무자용 사택을 건립한다. 당시 사택은 54,664평에 총191개동이 건축되었다. 이곳에는 직원·공원 사택, 합숙소, 공중 목욕탕 등이 함께 들어섰는데, 사택은 주로 10호·6호·4호·2호 등 장옥(長屋-나가야)의 형태였다. 구체적인 위치를 보면 현재의 부영로 동·서로 760번지에 신사택, 부영로 동편 760-1, 760-2번지에 연립형의 구사택이 13개 동이 있었다. 이중 8개 동은 사택, 4개 동은 합숙소, 1개 동은 목욕탕으로 추정된다.¹⁰⁾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한인 동원 통계를 보면, 한반도 내 노무동원 피해자는 648만 8,467명이었다. 이렇게 많은 수치는 한반도가 아태전쟁의 침략전쟁을 위한 중요한 기지였음을 말해준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주)히로나카상공을 1942년 6월에 인수하고, 그 해 11월 이곳의 명칭을 (주)미쓰비시 제강 상인천제작소로 변경하였다. 이곳에서는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주물 공장과 선반공장에서 87mm 포탄을 제작했다. 이외에 (주)미쓰비시 제강 상인천제작소는 BK(방탄용 강판) 가공품, 주강(鑄鋼), 형단조(型鍛造), 박격포 등을 제조하는 등 병기창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곳에 고용된 종업원은 직원 155명과 공원 474명을 합쳐 총 629명이었으며, 이중 조선인 공원은 54.2%였다.¹¹⁾

인천육군조병창의 간부진은 대개 일본육사 출신 군인이었다. 조병창장과 제2공장장, 제3공장장은 일본인이 맡았으며, 제1공장장은 조선인 육군소좌 채병덕(大島秉德)이었다. 조병창에서는 무기생산을 위해 조선과 중국 전역으로부터 금속품 공출이 이어졌다. 조병창 공터에는 일제의 가혹한 수탈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낫그릇, 낫수저, 제기, 세수 대야, 징, 범종, 양은냄비, 엽전, 구식 총, 칼 등 다양한 금속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이중 일부는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전등사 범종도 그 중 하나였다.

공출된 동유기의 집결지는 부평이었다. 모아진 동유기는 철길로 통해 조병창 구내로 운

9) 이연경, 2022, “1940년대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의 설치와 군수산업도시 부평의 탄생,”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30, 177.

10) 부평역사박물관, 2016,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3.

11) 부평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한 위 자료(2016)에 의하면 1939년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 시절 조선인 포함 직공수는 1,088명으로 추정되었다.

반되어 포탄과 무기로 제작되었고, 조병창 지하 시설은 제작된 포탄과 무기를 전쟁터로 보내기 전에 보관하던 곳이다. 당시의 조병창 지하 시설의 흔적은 현재의 부영공원 지하 시설 및 함봉산 지하호와 부평선 기차길 등으로 남아 있다. 지금도 엽전이나 구식 총과 칼 등이 발굴되고 곳곳에는 지하 시설과 주물 공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그림 5).



[그림 5] 인천육군조병창 시기에 만들어진 제6종합창선

(자료: 1960년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사가 작성)

* 주: 군용 철로(산곡동 군부대-부평역-일신동 군부대)가 남아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중국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확장된 전선에서 강해진 중국군과 싸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보급의 문제였다. 무기는 중요한 보급품 가운데 하나였다. 머나먼 일본 본토에서 무기를 생산해 중국의 전선으로 수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서해안의 항구와 철도는 수송의 최적지였다. 무기 생산의 측면에서도 인천의 부평 지역은 매력적인 곳이었다. 당시 부평역과 조병창 구내를 연결하던 부평선철로 중 현재 남은 구간은 약 3.16km 정도이다.

부평 지역은 지리적으로 분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의 공습을 피할 수 있는 잇점을 갖고 있었다. 이곳에는 기계기기의 생산과 수송을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졌으며, 경성 지역으로부터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달할 수 있었다. 평안남도 등 철광산이 매장량이 많은 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였다는 점에서 원자재 조달의 이점을 가진 곳이기도 하였다.

3. 맺음말

조병창은 일본군의 병기와 탄약, 그리고 전투용 차량 등의 제조와 수리를 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일본 육군에서는 육군조병창이라고 하였고 해군에서는 해군공창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인천의 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이 세운 군대의 군수물자를 제조·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곳이었다.

광복 후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군정 시기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일제의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었다. 부평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한국 사회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자산이다.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었고, 그들의 일상성을 훼손당했으며 피해를 입었으나 경험자는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당시의 경험자를 찾아 역사의 교훈을 새기는 작업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전쟁이 남긴 유적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부평은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한 곳이다. 오늘날의 인천육군조병창 일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주요 유적이다. 2020년 10월 개방한 미군기지 부지와 포로 제10반공포로수용소가 자리했던 부영공원, 제3보급단 외에 함봉산 자락을 따라 분포하는 27개의 지하호와 지하 시설, (주)미쓰비시(三菱) 제강 공장이 있었던 부평공원, 미쓰비시 줄사택, 영단주택 등은 한국의 대표적인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으로서 인천육군조병창 터에 남겨진 일부 시설과 함께 그 가치가 크다.



참고문헌

곽건흥, 2001,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국립중앙도서관, 2020, 일제강점기 아동과 여성 강제동원 자료 공개 포럼(2020.08.15.) 자료집.
 이상의, 2018,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부평의 역사,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 2016,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3.
 부평역사박물관, 2021, 도쿄제강 사택에 담긴 부평의 시간,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9.

이상의, 2019, “구술로 보는 일제하의 강제동원과 ‘인천조병창’, 동방학지 188, 107-160.
 이연경, 2022, “1940년대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의 설치와 군수산업도시 부평의 탄생,”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30, 165-208.
 이연경·홍현도, 2019, “부평 미쓰비시(三菱) 사택의 도시주거로서의 특징과 가치-1930년대말 부평의 병참기지화와 노무자주택의 건설,”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22, 45-86.
 이장열, 2020, “한국 대중음악 중심 장소로서 부평연구”, 기전문화연구 41(2), 135-172.
 전중환, 2019, “조선후기 부평도호부 읍치경관의 복원: 역사도시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 관점에서,” 기전문화연구 40(2), 71-96.
 정유천, 2013, “음악도시 부평-문화정체성 찾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외복지분과 자료집.
 정혜경, 2016, “일제강점기 한반도 강제동원과 미쓰비시,”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64-125.
 조건, 2021, “일제 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지하화와 강제동원 피해,” 한국근현대사연구 98, 171-214.

교신 : 박명식, (21327)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삼산동), 부평문화원
 전자메일: momo6275@naver.com 전화: 032-505-9001

Correspondence : Park, Myung Shik, Bupyeong Cultural Center, 151 Gulpo-ro(Samsan-dong),
 Bupyeong-go, Incheon 21327, Republic of Korea
 e-mail: momo6275@naver.com, phone: +82-32-505-9001

투고일 2022. 12. 13.

수정일 2022. 12. 25.

채택일 2022. 12. 26.

[Abstract]

Historical Symbolism and Heritage Value of Bupyeong Armory

Park, Myung Shik

Recently, opinions on demolition and preservation are conflicting with each other over the traces and some of buildings of the Incheon Army Arsenal of Japanese Colonialism. The main reason for this conflict of opinions is that research or investigation on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Incheon Army Arsenal and its ripple effects, which were created in the Bupyeong a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has not been dealt with in earnest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is study reveals the location background and main functions of the Incheon Army Arsenal in the Bupyeong a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ocusing on related data at the time, while exploring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Incheon Army Arsenal today to identify some of the buildings that made up the Incheon Army Arsenal. We tried to propose a solution to the recent disagreement over preservation and demolition.

Key Words : Incheon Army Arsenal, Asia Pacific War, Buyeong Park, Hambongsan Underground Facility, Mitsubishi Steel Plant, Bupyeong Park, Mitsubishi Jalsa House, Yeongdan House, Asia Pacific War Remains